전공특성 강좌 개발 결과 발표

"전공특성별 교수 방법 강좌 개발 연구"는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의 연구 과제로, 이 과제에 참여했던 교수자들이 전공 특성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면서 시도하였던 다양한 교수 전략과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연재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송욱 교수(서범대학 체육교육과)의 "대사작용과 운동" 강좌에 관하여 소개한다.

송욱*

'대사작용과 운동' (대학원 석사·박사 공통 수업): 운동 중 근육과 지방조직에서 변화되는 대사작용을 이해하는 교과목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1. 강좌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

1) 학문적 이론과 실제 스포츠 현장을 융합한 강의 체계 구축

기존의 이론에 치중된 수업 방식을 탈피하여 최근의 운동과 대사작용의 국제적 학문의 경향을 학습하며,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논문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대사작용과 운동'의 최근 국제적 연구 경향과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여 다양한 현장 적용의 벤치마킹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2) 교수와 대학원생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교수에 의한 주도적 강의식 수업 진행, 즉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발표를 맡게 된 조의 발표자와 토론 진행자는 발표 전 교수와의 사전 논의(수업 전날)를 통해 발표 내용을 점검하며 또한 대학원생의 질문을 미리 점검하여 발표자와 토론 진행자가 충분히 수업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수업 참여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위해 매 수업에 할당된 챕터를 미리 읽고 질문할 내용을 리포트로 제출하여(매 챕터당 최소한 세 가지 이상) 토론 위주의 수업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하였다.

3) 경쟁 학습 체제에서 조별 협동 체제로의 전환과 역할의 균형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쟁 학습 체제의 구도에서 조별 협동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를 들어 3명이 한 조가 되어 발표자, 토론 진행자 등으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별 팀워크를 발휘하여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defense)하도록 함으로써 협동하여 일을 수행하는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 다양한 평가 체계의 개발

평가 체계를 다양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학생들의 토론 참여를 위한 질문 리포트, 토론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고, 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대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또한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다. 실제적으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평가 항목을 명시화하고 발표한 추후에는 written feedback을 기록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발표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원생의 연구 능력 향상과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Term Proposal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였다.

5) e-Learning을 위한 교수법(e-TL 교수법)의 시도

e-TL 포털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수법을 시도하였다. 강의 일정·강의 계획

서·공지 사항 등을 웹을 통해 알리고, 특히 커뮤니케이션 관리의 측면에서 e-TL 교수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토론방'을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학생들이 발표할 논문을 미리 공지하여 충분하고 내용 있는 토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강좌 개발의 성과와 결과물의 사례들

1) 토론 문화의 정착

수업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전통적인 관계를 탈피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밤에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집중적이고 활기 있는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종강 후 평가 시간에서 이제까지 들었던 수업 중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있었으며 모두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배우며 학습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2) 조별 협동 체제

경쟁 학습 체제에 익숙한 학습자의 협동 체제로서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 조별 내에서 발표자, 토론 진행자, 질문 답변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도록 하며 조별 팀워크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서로 답변을 통해 여러 질문에 대해 방어(defense)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설득시키는 훈련이 협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3) 평가 체계의 다양성

시험 또는 발표로 일관된 평가 체계로부터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학생 입장에서도

한두 가지 요소로 평가되는 부담을 덜게 된 결과가 되었다(준비 및 토론 참여도 20%, 중간 필기고사 20%, 한국말 교재 발표 20%, 영어 논문 발표 20%, 연구계획서 제출 20%). 또한 평소 수업의 준비와 참여가 성적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준비성이 돋보였고 활발한 토론을 통한 참여적인 수업이 된 것이 큰 수확이었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글로 작성하여(연구계획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4) 영어 발표의 피드백

영어 발표 능력은 국제학술대회 발표의 실제적 준비이자 글로벌 시대의 연구자로서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판단되는데 동료 학생들의 발표가 큰 자극이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하여 자신의 발표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수의 written feedback(논문의 이해와 해석, 발표 스타일, 질문에 대한 답변력 및 관련 지식, 그 외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과 백분율 점수(20% 반영)를 바로 다음 수업시간에 발표자에게 전달해주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5) e-TL의 활용

'자료실'을 통해 매주 강의 및 발표 내용을 탑재하여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별 활동'을 통해 주중에 만나지 않고도 웹상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실제적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Feedback from Professor'를 통해 매주 발표자와 강의 내용에 연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여 발전적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전달할 수 있었다. '질의응답'을 활용하여 수업 전 토론을 위한 질문들을 세 가지 이상 탑재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발표 조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토론 참여자 모두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었다.

3. 강좌 개발 후기(後記) 및 차후 개선 방향

여러 가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심 강의자로서 염려가 되었지만 함께 수업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이 수업을 되돌아보면 서로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게 된 참신한 수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경직되고 수직적인 강의 구조를 깨뜨리고 모두가 참여하고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방어하는 토론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강의자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수업보다도 학습자가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를 함으로써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얻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수업 토론 중 오고 갔던 많은 주옥같은 질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가 체계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부분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균형 잡힌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도울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영어 발표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발표자의 자질을 갖추는 첫발을 내디딘 점도 본 강좌를 통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감이 있지만 e-TL 교수법을 사용하여 본 수업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었고 이번 강좌에 사용한 기본적 기능 외에 동영상의 활용 등 다양한 e-TL 교수법 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